

고용장관 “연차·육아휴직 불이익 강력 단속”

“의식 관행 개선돼야 제도개선 취지 살아”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의견 청취는 계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되자 올해 ‘공짜노동’과 함께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불이익에 대해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

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으므로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 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사용 실태에 대해 대대

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지난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청년유니온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지방별로도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환기자



여수소방-119특수대응단, 합동 해상 케이블카 인명구조훈련

여수소방서는 지난 27일 돌산을 소재 여수 해상케이블카에서 119특수대응단, 운영업체 포마(주)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진도소방, 관내 이장회의서 산불·임야화재 예방안전교육 실시

진도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자 관내 이장회의를 방문하여 간담회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소방, 의용소방대 연합회 ‘주택화재 예방’ 결의대회

강진소방서는 지난 23일 강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함께 주택화재 예방 “마을 안전지킴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소방, 건설현장 선제적 화재안전대책 추진

담양소방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건설현장(공사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차원의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동부소방, 3월 중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27일 대인시장 일대에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완도해경, 현장 소통으로 낚시어선 사고 예방 협력 다짐

완도해경에서는 최근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강진군 낚시어선협회 및 종사자, 지자체 등 총 88명이 참석하여 농무기 기간 중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목 디스크 수술 환자 사망...경찰 “의료진 과실 아니다”

척추전문병원서 수술 중 20대 여성 의식 잃은 뒤 사망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혐의 입건한 의료진 7명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 입건했던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7명을 모두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

을 받던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지 7시간에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했다.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경찰은 우선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간호사 2명·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 사망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마취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마취제 부작용이 발생했고, 급성 고열로 A씨가 숨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마취제 부작용 사례는 확률적으로 1만 명에서 2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가 의식을 잃고 흔수 상태에 빠지자 대형 의료기관으로 옮기기는 등 후속 대처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크지 않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이 병원은 지난해 2

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복통을 호소, 응급 수술을 받다가 3개월 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병원은 앞서 지난 2021년 의사 보조인에게 봉합 처치 등 전문 의료행위를 대신 맡긴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적발돼 처벌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에도 또다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3명과 의사보조인력 1명이 경찰에 추가 송치되기도 했다.

서선옥기자

두 감정 기관은 공통적으로 A씨

하와이서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클럽에 공급한 일당 검거

대마·코카인·엑스터시 등 시가 20억 상당 밀반입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하와이에서 국내로 마약을 보낸 해외 총책 A(30대)씨와 국내 유통책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부탁한 마약사범 66명을 불잡았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대마, MDMA(엑스터시),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류를 진공 포장해 과자상자 사이에 숨긴 뒤 국제우편으로 50여 회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들을 강남 클럽 등 일대에서 던지기 방법으로 클럽 운영진(MD)이나 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들을 강남 클럽 등 일대에서 던지기 방

법으로 클럽 운영진(MD)이나 클럽을

이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7월 부산 사상구의 한 빌라에서 오배송된 해외 택배에 수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이후 택배에 든 물건이 마약임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택배의 발송인이 강남 클럽 MD(영업 담당) 출신인 A씨로부터 배송된 사실과 마약 등 중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으로 국내 입국하도록 해 올해 1월 인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세관, 검찰과 협업해 기존 수사 중이거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종결된 밀반입사건 9건을 추가 인지했고, 이번 밀반입사법의 동일 범행임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대마초 5.8kg, 엑스터시 2920정, 코카인 20.5g 등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밀수된 마약은 운반책들이 특정 좌표에 던지기 방식으로 클럽 MD

들에게 판매됐다. 클럽MD들은 이를 클러버들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 클럽에서 마약을 구매·복용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며, 이들은 클럽 화장실 등에서 마약류를 복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클럽MD들은 호객 등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는 역할로 전국 각지에서 고용됐으며, 이를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클럽 20여 곳에 마약을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향후 경찰은 하와이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수거한 총책과 마약

을 판매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이승주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동남아 지역이 주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경유로 많이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동남아가 아닌 지역에서 들어온 마약을 밖혀내고, 해외 총책을 겨우해 마약류 유통 경로를 차단한 데 의의가 있다”며 “클럽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 전개해 마약류를 차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를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는 역할로 전국 각지에서 고용됐으며, 이를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클럽 20여 곳에 마약을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자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첨보를 입수하고,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께 화산면 속소에 있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한·미 해병대 연합 전술훈련

27일 해병대 1사단 황룡여단 산악대대는 미 제13해병원정대와 함께 연합 전술훈련을 실시했다.